광주서 낙태죄 무죄 첫 판결 나왔다

광주지법, 위헌 헌법소원 낸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서 무죄
허위 진료기록·요양급여 청구만 유죄 인정…벌금 1000만원
광주지검도 지난달 낙태사건 전국 검찰청 첫 기소유예 처분

광주에서 처음으로 낙태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던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이다. 광주지검도 전국 검찰청 중 최초로 낙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승낙낙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3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승낙낙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며 "A씨가 낙태 수술을 할 당시에도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허위 진료 기록을 반복해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많지는 않지만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임신 여성들의 요청으로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낙태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러 온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무월경, 염증 등 다른 질환을 기록해 14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35만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하고 다른 진료과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낙태수술 비용 자체를 청구한 적은 없으며 후유증 치료에 따른 의료보험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2월 형법 269조와 270조의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임신 12주 이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낙태 피의자를 기소유예하는 취지의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12~22주 이내에 낙태했거나 사유가 논란이 있는 경우는 새로운 입법 전까지 기소를 중지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0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자가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를 한 사건에 대해 전국 검찰청 중 처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폐쇄 요양병원서 변사체 발견 인기 얻은 흉가체험 인터넷BJ 같은 장소 또 들어갔다 입건

10년 넘게 문을 닫은 요양병원을 찾았다가 변사자를 발견해 인기를 얻은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같은 병원에 다시 들어갔다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서부경찰은 4일 "폐쇄된 요양병원에 들어간 박모(30)씨를 주거침입협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30분께 2004년부터 폐쇄된 광주시 서구 동천동의 D요양병원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흉가체험을 주제로 방송을 하는 박씨는 지난 2월 16일 D요양병원에서 숨져 있는 노숙인을 발견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다. 박씨는 이후 유명세를 얻어 광고와 후원으로 많은 수익이 생기자 또다시 이목을 끌 목적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다가 한 네티즌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D요양병원은 2004년 영업을 종료하고 부지매각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비정규직 파업투쟁 승리대회 4일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투쟁 승리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승리대회에는 광주전남 공무직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교육공무직노조 광주지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조합원 15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국 장례식장·대학교 음식점 점검 광주·전남 11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광주·전남에서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장례식장과 대학교내 커피전문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장례식장·대학교 내 식품취급시설 2007곳을 점검한 결과 장례식장 25곳과 대학교 21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전남에서는 장례식장 7곳과 대학교 4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광주에선 광주남문장례식장과 조선대병원장례음식점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국빈장례문화원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서광주장례식장 내 서광주식당과 선한병원장례식장, 천지장례문화원 구내식당 등은 일부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근무하다 적발됐다.

전남에서는 해남에 있는 국제장례식장 내 국제식당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했다가 위생점검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전남대학교 교내에 입점한 커피숍 2곳은 각각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거나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 조선대공과대학 위탁급식업체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강인규 나주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64) 나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SNS 단체방을 통해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돼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강 시장의 아들(38)과 딸(36)의 항소도 기각됐다.

강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가 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당선이 무효가 되나 강 시장 자녀들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이 조항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ARS를 이용해 1만40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 사립 중·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45명 적발

학교측 솜방망이 징계 논란

전남도교육청 감사에서 목포의 한 사립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학교측이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보다 낮은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공직 기강 특별감찰을 진행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한 목포의 Y학교법인 산하 2개 사립학교 교사 35명과 행정실 직원 10명 등 4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을 조작해 야근을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1인당 최대 100여만원씩 총 2936만5000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부당수령액을 전액 회수하고 부당수령액의 2배인 5873만원은 가산징수금으로 환수 조치했다.

또 적발된 교직원 중 3명은 해임 등 중징계, 6명은 경징계,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요구한 교직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도교육청의 요구보다 낮은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하도록 재차 요구하겠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홀로 산행 여성 상대 강도행각 벌인 40대 구속

동네 야산을 산행중이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질을 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4일 "산행중이던 여성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A(45)씨를 강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정오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짚봉터널 인근 야산에서 산행중인 60대 여성 B씨를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일행과 떨어져 산 중턱에서 쉬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해 현금 4만원을 빼앗았다.

경찰은 야산 출입로 인근 상가 등의 CC-TV를 분석해 지난 1일 A씨를 붙잡았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A씨는 교도소 출소 후 마땅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평소 형제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계탕 먹고 식당 닭 모양 조형물 슬쩍했다 뒤늦게 '덜미'

쌍나팔

○…지역 유명 삼계탕 전문점을 찾은 60대 여성이 식당 카운터에 놓인 닭모양 조형물을 몰래 훔쳤다가 경찰 서행.

○…4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여·67)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있는 유명 삼계탕 전문점에서 삼계탕을 먹고 나간 뒤 잠시 후 다시 들어와 카운터 앞에 놓인 총 25만원 상당의 닭 모양 공예품 10여개 중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는 것.

○…식당주인은 일주일 뒤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CC-TV 추적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닭 모양이 예쁘게 생겨 순간 욕심났다"고 선처를 호소.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G.O.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좋음.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병원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45%) 18억7백8십만원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70%) 10억1천7백4십만원**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공장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45%) 6억6천6백8십만원**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5억8백7십만원

근린주택 목포시 옥암동 토지 : 407.8㎡(123.4평) 건물 : 716.43㎡(216.7평) 지하1층지상2층
감정가 : 7억6백5십2만원 최저가 : (70%) 5억8백7십만원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45%) 10억9천5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